

국회 앞 25만 인파 “3.1정신으로 체제 전쟁 승리하자”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개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3.1절 맞아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에는 약 25만 명(주최측 추산)의 기독교인들과 애국 시민들, 그리고 4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세이브코리아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전국 10곳 이상에서 진행돼 있으며, 지난 한 달간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대전 등을 순회하며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C 등이 연설하는 집중 집회를 열어 각각 수십만 명의 인파가 함께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신 서울에서 다합쳐 모여 진행했다. 1부 예배에서 ‘회칠한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마 23:27)을 제목으로 설교한 손현보 목사(세이브코리아 공동대표, 세계로교회 담임)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부폐한 국회, 현재, 사법부, 선관위를 향해 70번이라도 ‘화 있으리라’ 말씀하실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지금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했다.

손 목사는 “여러분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며 “1919년의 유관순처럼 청년들이 일어나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반국가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자. 하나님이며, 대한민국을 지키소서”라고 했다.

주성민 목사(세계로금란교회 담임)는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소서’(대하 7: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는 목사로서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100% 확신한다”며 제 21대 총선 당시 파주시 진동면 투표 가능 유권자가 143명이고 그 중 123명이 투표했다고 선관위가 밝혔는데 나중에 투표소 기록을 보니 181명이 투표했다고 나와 있었던 것 등, 여러 문제의 정황들을 지적했다.

주 목사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데 검사도 하지 않고 감추려 하느냐? 이 문제 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소용 없다”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리를 지키고자 계엄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죽도한 박조준 목사(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뿐 아니라 전국 도시에 모인 것을 보시지요. 우리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지요. 하나님 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라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대통령,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세요”라



전한길 강사와 전남대 시국선언 화재인물 배진희 학생

고 했다.

특별 메시지를 전한 김진홍 목사(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는 “3.1만세운동에는 3가지 정신이 있었다. 첫째는 자주독립정신, 둘째는 평화정신, 셋째는 저항정신”이라며 “세이브코리아 운동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며 “국힘 대 민주당도, 보수 대 진보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공산주의 체제 간의 전쟁이다. 힘을 합쳐서 이번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권면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모스tan 전 국제사법대도 참석해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위하여’를 주제로 발언했다. 그는 계엄령의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공작,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임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라운드C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탈북민 김다혜 작가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든 정치범수용소를 고발합니다’. 이대남의 우회전(김찬혁)이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를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개그맨 출신 내시심분 유튜버 김영민 씨와 최국 씨, 김혜지 서울시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도 발언에 나섰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낭독하고, 황교안 전 총리도 ‘대한민국의 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연설했다. 정유라 씨가 깜짝 게스트로 등

장하기도 했다.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일타강사’ 전한길 강사는 “윤 대통령 복귀와 제2의 건국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전 강사는 먼저, 곳은 날씨 가운데 3시간 동안이나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리를 지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이후 106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유관순 여사가 나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적 결단이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가며 계몽령이 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우리의 주장이 헛되지 않는 것은 지난날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던 대학생들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후 김수아(이화여대), 강인숙(전남대) 등이 발언했다. 국민대회는 하이라이트인 전한길 강사의 강연과 헌법재판소 규탄 구호 제창 후 국회 방면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CT



‘성경에 계시된 불신자의 실상(實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엡 2:1~5)



조용목 목사

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과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와 지옥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요 3:16, 롬 5:8:9) 만일 지옥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막 16:15,16)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관하여, 지옥의 실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눅 16:19~31) 성경은 지옥에 관해 말할 뿐 아니라 그곳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두 종류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정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결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두 종류의 운명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과 지옥으로 가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둘 이킬 수 없는 순간인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오며 누구에게나 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시간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리십시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 금선무는 없습니다. 실상이란 실제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 보면 자기 겉모습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 실상은 거울을 통하여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적 실상을 짚나라하게 보여 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자신의 실상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

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으며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죄인이라는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관하여 매우 분명하고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즐겁지 않아도 지옥에 관하여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멀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 하였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성경에 그토록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관해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

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생명의 말씀



백영자 목사

- 교단 회계
- 직전 전국여교역자국장
- 전라지방회장
- 녹동순복음교회 담임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 32:1~12

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할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걸웃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걸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힘이다”(마 9:20-21). 아곱이 두렵고 떨릴 때 벤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창 28:15).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마 23:19).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족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삼상 16:23).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누가 내 사정을 말해줬나 싶을 정도로 찔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르고 감동시킵니다(히 4:12).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고(행 2:37) 감동되며 순종해

니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시 119:105).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도 합니다(요 14:6).

2.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반드시 믿을 의 고백이 따라옵니다(잠 10:22) 신약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적과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적과 표적이란 기적 뒤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 2:11),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요 6:14).

아곱이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자기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니”(롬 8:32). 오지여행가 한비야씨는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에서 항수병이 생길 때 라면을 먹으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라면을 먹고 나면 빙봉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그 때 저 라면을 먹었지 라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이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인생 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롬 3:1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신 1:30).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3.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했습니다(12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요

19:30)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도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잠 24:16). 넘어지면 일어서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팔박을 피해 도망칠 때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물었던 말입니다. 네가 팔박을 피하여 도망간다 내가 죽으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했습니다.

소방관이 사명감을 잊어버리면 불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주의 종이 사명감을 잊어버리면 복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사명감은 불구덩이(단 3:8), 사자 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단 6:10).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반기를 바라면 풀어 주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씨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마 21:3). 아곱이 사명을 깨닫자 하나님께서 죽음의 옮무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은 2:10), 바울과 실리는 밀림보 감옥에서 풀어 주셨습니다(행 16:26). 사명을 회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처럼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딤후 4:7-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딤후 1:7). 하나님을 믿고 악으로! 강으로! 배짱 있게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정

합동전총회장단 대통령 탄핵반대



예장 합동 총회장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중립을 천명한 가운데, 이 교단에서 총회장과 부총회장(장로)을 지낸 이들의 모임인 증경총회장단회(회장 김선규 목사)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김선규 목사와 총무 전계현 목사, 부회장 윤선율 장로와 회계 임영식 장로 등이 참석했다.

아신대에 발전기금 1억 기부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의 엘엔피 코스메틱(주) 권오섭 회장이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에 학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권 회장은 2020년부터 꾸준히 아신대를 후원하고 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통령 탄핵 사건 현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야당 중심)로부터 탄핵을 당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이하 현재)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것은 비상계엄의 법적 절차와 ‘내란죄’ 문제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내란죄를 넣은 것인데, 국회 쪽에서는 후에 내란 문제를 뺐다고 하였다.

탄핵 문제에서 핵심이 내란죄인데, 이를 빼면 현재는 바로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현재는 그런 법적 하자에 대한 고려는 염두에도 없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

치지 않아야 되는 기본을 어긴 것이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을 쓸 때는 ‘내란죄’를 명시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족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방어권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다. 이를테면 지난 4일 증인 심문에서 흥모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심문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대통령족에서 요청했는데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11일 대통령족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지만, 현재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재 재판관(이하 문 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심문을 원했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TF팀이 써 준 각본대로 진행하며, 이를 재판관들이 합의 했다며) 거절하였다. 여기에서 TF팀

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재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따져 보아야 한다. 현재 재판관들이 누군가가 씨주는 대본대로만 한다면, 현재에 대한 공신력은 더욱 떨어진다.

또 대통령족에 아주 불리한 시간 배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가 일정을 임의대로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 밖에 증인 신청에서도 국회측의 증인과 대통령족이 원하는 증인 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대통령족에서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한 것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행은 이를 묵살하였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비상계엄의 원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현재가 왜 일방적으로 가로 막아야 되는

가?

탄핵 심판은 단심제(單審制)이기 때문에 피정구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에 큰 오跫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세심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를 전성하는 집회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국민들의 민의(民意)를 증명하고 있다.

또 수많은 대학 교수들도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난 10일 연세대에서의 ‘탄핵반대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한양대 등으로 번져 나가는 상황이다. 또 현법학자

와 법률가들도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로 인하여 국회 청원에는 문 대행을 탄핵하자는 의견이 지난 1월 31일 올라왔는데, 2월 17일 기준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5만 명이 넘으면 국회는 자동적으로 이를 심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다.

거기에서 문 대행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가 속했던 고교 동문의 카페에는 약 7,700개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2,000여 개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명의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이 있는데, 혁직의 최상위 법조인은 헌법재판관이며, 그중에서도 문 대행은 최상위 으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만한 도덕적, 지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모든 법률의 다툼에서, 최종 권위인 헌법을 가려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결정할 것이며, 또 정당을 해산시키고, 심지어 국민들이 투표를 통

아시아감리교협 신임 의장 선출
아시아감리교협의회(AMC)가 지난 2월 18일(화)부터 20일(목) 까지 필리핀 클락(Clark)에서 열려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의 AMC 의장 임기는 2028년 2월까지이다. 공식 명칭은 2025 AMC & FAMBP & AMMP이며 실행위원회로 선교전략회의로 회의가 진행된다. 기간에서는 의장인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해 4명이 함께했다.

악법대응본부 정기총회 개최



악법대응본부가 지난 2월 27일 대전에 소재한 새도남교회(오정호 목사)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악대본은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막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여 2022년에 출범한 기관이다. 대표회장과 주요임원들은 유임되었다.

여름은 대통령까지 파면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현재와 여기에서도 가장 책임 있는 문 대행이 아닌가?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참담한 정도로 부끄럽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헌법재판관은 모두 장관급이며, 특히 소장은 총리급이다. 예우도 국민들이 세금에서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수장인 문 대행은 좌파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념 편향적인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 자신의 성향은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막중한 권한으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기를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중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을 영어로 ‘Justice’라고 한다. ‘정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나 문 대행에게서 ‘정의’를 느낄 수 있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종북(從北)·종중(從中) 세력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도 이런 위기 상황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침묵이 배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지금 누가 불법인가? 누가 부정을 감싸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재판한단 말인가? 헌법 최고 기관인 현재와 그 일부 재판관들과 특히 현재소장 권한 대행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낙심이 된다. 헌법재판소와 특히 이를 이끌고 있는 문 대행은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판관의 명예를 살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양심적이고, 헌법에 따른 정의를 올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

교단 제73차 총회 제10회 임원회

무너진 사법질서 바르게 세우는 계기

WEA 서울총회 추진 일부 대형교회 배도행위 중단해야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10회 임원회가 지난 2월 24일(월) 오전 11시 흥제은혜교회(담임 이인호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

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회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최정식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

의 설교,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준 목사는 계 19:6 말씀을 본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도 믿는다”고 전하고 “오늘 이에 이번에 계임을 통해 국민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왜곡되어 있

는 것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등으로 더욱 하나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조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충무 보고 후 결의 및 재무 최정식 목사의 수임 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지출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보고사항으로 한기총 제36회 정기총회 참석, 2025년도 목사고사,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개최,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등의 사항이 보고되었다.

또한 정기지방회 개최에 관련한 사항으로 오는 4월 9일(수)까지 74차 총회 지방회 신입원선출을 마무리하여 정기총회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안내하고 73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가 3월 13일(목)에 개최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2025 교단정년연합캠프 개최, 교경 중앙협의회 제52차 정기총회 참석,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원 개강(신학연구원, 목회대학원)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임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여자 가지 훈란스러운 나라의 정치상황의 안정을 위해 사법질서가 무너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며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을 멈추고 정쟁이 아닌 정상적인 대화로</p

미니차별금지법 제주평화인권현장 제정 저지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폐해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에서는 지난 2월 23일(일) 오후4시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정 선포를 시도하는 미니차별금지법인 제주평화인권현장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가졌다.

제주한마음교회의 찬양팀의 찬양이 뜨겁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1부 예배에는 김건수 목사(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부회장 및 특별위원장)의 사회로 박병해 목사(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의 설교가 있었으며 2부 특강에는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와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의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서 제주평화인권현장의 폐지를 위해 서 이정우 목사(서귀포시기독교협의회 회장)



의 기도 인도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서 박재우 목사(서귀포시기독교협의회 부회장)의 기도 인도가 진행되었다.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가 휘날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제주평화인권현장의 폐지를 위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제주도 교회 공동체의 영적 환경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제주도지사와 제정위원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루속히 현장 제정을 포기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순복음광주신학교

순복음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2월 9일(주일 저녁)부터 11일(화)까지 경남산청 한방가족호텔에서 ‘교수부부동반 수양회’를 갖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교

교수부부 수양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

회와 미래의 한국교회의 일꾼 양성을 위해 오직 말씀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2박 3일간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쉬의 시간을 함께 했다.

학생처장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1

부 예배에서 학장 최정식 목사는 요 8:32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제하의 설교를 한 후, 이어진 2부 강의에서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신조’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튿날 제3부 4부 순서로 본교 교수인 정찬

시 목사가 ‘세계교회사’에 대해 열정을 다해 강의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교수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 동반해 주신 사도들께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목회 다짐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2월 17일(월)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 소재 새로운교회(담임 최규식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풍근 목사(순복음광양교회)의 사회로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요 6:1~15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에서도 이적은 일어난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려 주신다. 모든 주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아가자”고 권면하며 만사가 행통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했다.

설교 후에는 총무의 인도로 정책위원장 목사님과 교단총회와 교단 산하



지방회와 모든 지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라지방회 교회와 목회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핵심하여 기도하였으며 최남성 전임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최규식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2부 회의에서는 회원 점명과 총무, 서기, 회계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74차 전라지방회의 임원진 구성을 위해 정기지방회를 앞둔 다음 달 월례회

에서 결의하기로 안건을 처리하고 김갑신 목사의 기도로 모든 회무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후 새로운 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애찬과 다과를 나누며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고 대한민국과 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전라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총회 선관위모임, 임원선출 관련 논의

3월 31일(월)까지 74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키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2월 20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74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 진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선관위원 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선관위원

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단 6: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나라가 잘 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새로 선출될 임원들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선임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

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서기 조길수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조길수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오는 3월 31일(월) 오후 5시까지(입후보자 서류 도착분에 한함)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며 이를 공문발송과 함께 목양신문에 공고(목양신문 제1269호 2025년 3월 8일자 8면에 게재)하기로 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2025 교단청년연합캠프 열려

미래를 짚어질 미래의 주역들 뜨겁게 찬양과 기도 …김인찬 목사, 김영준 목사 등 생명의 말씀 전해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갈릴리큰소망교회
교단 청년국(국장 오세준 목사, 차장 문찬우 목사) 주관 2025 교단청년연합캠프가 지난 2월 28일(금)과 3월 1일(토)까지 1박 2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 성전에서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하나님 된 가운데 열려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짚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함께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한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에서 지방회 신하 교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주위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뜨거운 열

기 속에 1박 2일간 계속된 이번 캠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고전 3:16-17)라는 주제아래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첫날 개회예배로 시작되어 교단 청년국장 오세준 목사의 사회,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큰소망교회)의 개회예배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청년의 때에 도전하고 죄선을蹈하되 우리의 피난처하시고 힘이 되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전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항상 끌어 기도하며 세계를 향해 도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방회 교회별로

참여한 청년 1백여 명이 1박 2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님 되었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교단 전임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저녁집회 인도를 비롯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 오세준 목사, 임형순 목사, 이경진 목사, 문찬우 목사, 이반석 목사 등의 찬양, 특강, 기도 인도, 고대운 목사의 아이스 브레이킹 인도, 텐트메이커스 송재홍 목사의 찬양콘서트, 경배와 찬양, 공동체 훈련, 긴증 및 시상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



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었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는 신앙심이 돋보인 의정부시청 빙상팀 감독 할렐루야 빙상경기 해설자 제갈성렬의 간증 및 특강으로 빙상

경기 때마다 온 국민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신실함과 재치로 청년팬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녹여놓았다.

'후손들이 공산세력의 노리개가 되기를 원하는가?'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지난 2월 24일 "우리 후손들이 주적 공산세력(종북·진중)의 노리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의 경제와, 문화와, 안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중공에게 잡식당해 버렸다"며 "또한 국회와 사법부와 경찰과 언론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와 수많은 장관을 탄핵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 후손들이 주적 공산세력(종북·진중)의 노리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 중공의 노리개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경제와, 문화와, 안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중공에게 잡식당해 버렸습니다. 또한 국회와 사법부와 경찰과 언론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대통령과 총리와 수많은 장관을 탄핵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침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의 속성은 거짓과 학살과 숙청과 박해입니다. 이 사태를 좌시하다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북녘땅 동포들과 중국 인민들 같이 공안이 감시하고, 자유가 없이 억압받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화소에 끌려가 간수들의 성적 노리개가 될 것입니다.

6.25 노래는 중공군에 대한 극도로 깊은 원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유언 같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사 중에 "아야 잊으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원수를 막아내어", "불의의 역도들을 멎 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려 모조리 쳐 부수어"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도 주적이지만 단순히 '역도'로 치명했지만, 중공에 대해서는 '옛도적 오랑캐'로 심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중공군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적개심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를 중공에 넘기려고 중

국공산당 대회에 정당기를 걸고 굴종하고 있는 괴뢰 도당들이 있습니다. 중공 괴뢰들은 주어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과 폭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형식적인 탄핵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이 정해준 헌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만일 종시(終始)를 깨닫지 못하고 분열을 주장해서 남의 괴뢰가 되기를 감심(甘心)할 진대 인심이 결코 방임치 않을 것입니다."(이승만 대통령)

2. 탄핵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가 처음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내란' 혐의를 포함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현재가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기관이지, 소추 시유를 마음대로 수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면, 현재는 그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회의 요청으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란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처음부터 법률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회가 내란 혐의를 앞세워 탄핵을 추진했으면서, 현재의 심리 단계에서 이를 철회하고 다른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국회가 처음 탄핵소추를 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검토하지 않고, 일단 통과시킨 후 필요에 따라 탄핵 사유를 수정한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탄핵 소추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현재는 당연히 이를 각각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현재가 임의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란 혐의가 근거가 없었다면, 국회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논의를 거쳐 탄핵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내세워 탄핵을 강행한 후, 심리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정치적 전략에 따라 가변적으로 바뀐

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를 쉽게 철회한다는 것은 국회가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한 것입니다.

3.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충분히 숙의하여 결론을 내린 과정이 회의록과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만일 그러한 문서가 없다면 당신들은 기본적 자질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법복을 벗어야 하며, 내란을 일으킨 동조자들입니다.

국회와 현재는 존엄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심리까지 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핵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서 이야말로 이것이 내란입니다.

국민이 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종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독재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공에 대해 그리고 국내에 침투한 중공인 추방은 물론 전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를 팔아버려는 자들에게 애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을 하는 자들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을 무시했으므로 이제 시민들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새로이 정한 규칙

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만일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불을 더욱 불이 는 것이 될 것이며 존엄한 심판과 저주만이 있을 것입니다.

4.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하자.

청하고 함께 중공을 압박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리를 잃었던 비운의 이스라엘 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침략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두려움 없이 괴를 훌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으로 돌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이미 경고한 바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필코 우리 선열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북녘 동포들을 구해내고 한민족 동포들과 함께 우리의 고토 중원대륙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중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침략국으로 기소할 것이며, 전문학적인 전쟁보상금도 요청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 몸통을 없애는 작업을 대한민국이 나서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압박하는 국가는 영원히 사라지도록 혈맹 미국을 돋는 일을 할 것입니다.

5. 우리가 해야 할 일

1. 개인정보를 노리는 중국산 제품을 사지 맙시다. 틱톡과 위챗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2. 한국 교육을 흔드는 공자학원에 가면 안됩니다.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3. 중국 자본이 한국 언론과 기업을 장악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4. 중국 기관에 들어간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은 나오기 바랍니다. 수집한 사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모두 미 정보부에 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웁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www.tanhakbanda.com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모든 개별 의견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 각자의 의견과 신중한 고민이 기록된 회의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대통령보다 국가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임의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의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보다 국가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임의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방어권을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목적의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국회가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내세워 탄핵을 강행한 후, 심리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유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정치적 전략에 따라 가변적으로 바뀐

을 탄핵하는 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구애를 하고 있는 반역 도당이 틀림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탄핵반대를 외치는 무수히 많은 성난 군중들이 보아십니까? 그 누가 나서서 시위대들에게 설명을 해준 자가 있습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폭거를 하고 있는 자들을 역도로 규정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중공에 굴종하고 팽아넘기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중공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시민들은 반역 도당들을 끌어내리고 나아가 이를 조정하고 침략한 중

대한민국이 중공에게 점령당하면 자유세계는 위험해집니다. 태평양에서의 세력은 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막계진 전선을 성실히 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서운 화려를 가진 나라이며 찬란한 문화와 위대한 정신을 DNA로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를 침략하는 자들의 심장부를 끌어온 단죄를 내릴 것입니다.

중공은 홀로 싸우겠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혈맹 미국과 이웃 일본과 6.25 전쟁 참전국 60개국과 함께 합니다. 또한 '일대일로'로 속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23개국에게 중공에 대한 채무상환 디플트를 요구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 제52차 정기총회·기도회 개최



제52대 대표회장에 충만한교회 임다윗 목사 선출

교회와 경찰의 가교 역할과 15만 경찰 복음화를 위하여 조직된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이하 교회)가 지난 2월 24일(월) HW컨벤션센터에서 제52차 정기총회 및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오전기도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25개 시·도경찰청 총대들이 참여한 가운데, 먼저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회무처와 함께, 새 대표회장으로 충만한교회 담

임 목사인 임다윗 목사를 선출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었다.

이어서 기도회에서는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경북도지사 양재철 목사가 대통령과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경북도원장 신철모 목사가 경찰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회장 박현준 목사가 경찰 선교와 경찰 발전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제49대 대표회장을 지낸 배진기 목사가 설교를 했다. 이후 순서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감사장 전달, 연이어 인사

말(대독) 그리고 직전 대표를 지낸 오범열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제52대 대표회장을 지낸 배승우 목사의 축사, 제33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재완 목사의 격려사, 제36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상운 목사의 축도, 혜양경찰청 경북도장 남상곤 목사가 오찬 기도를 함으로 마쳤다.

교경의 태동은 1960년 지역 사회 목사들이 이 자발적으로 경찰 유치인(留置人) 교회를 위하여 경찰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6년 서울 시장의 명의로 경북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69년에는 내무부의 치안본부 내규로 경찰 위원회 목사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경찰 위원회가 이뤄졌다. 마침내 1972년 3월 21일 정식으로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가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 교경의 주요 사업은 전국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원, 중앙회조전기도회, 성탄축하예배, 경찰사업, 훈련위문, 6.25상기합동예배, 경찰의날기념예배, 경찰관조회예배, 각

시·도조찬기도회, 청소년선도행사, 유치인 교육선도 및 위문, 방법대교양, 각 지구별 불우이웃돕기, 합동세례식, 불우노인위문, 불량배순화운동, 지역사회봉사상, 경찰병원지원, 경찰경교회예배, 전국경찰복음화대성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다윗 목사는 경찰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거액을 쾌척하였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경기도 화성에 경찰 가족을 위한 잠수리 수양관이 완공된다고 했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삼일절 기독교정신 계승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 증거

국가의 절체절명의 상황 극복 위해 더욱 기도에 힘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지난 3월 2일(주일) 오후 2시 아산큰빛교회에서 아산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김성권 목사) 주최,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병완 목사) 주관으로 열려 삼일절 기독교정신을 계승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기독정신을 바

탕으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기념예배는 아산시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 곽일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윤봉해 목사의 대표기도, 민영기 목사의 성경봉독, 대전 CBS 이시장 박노섭 목사의 설교, 문수영 장로의 현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노섭 목사는 삼하 16:9-13 말씀을

없다는 믿음의 기준을 지켰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을 수 있게 한 근거가 되었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무원들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조창훈 목사, '아산시기독교연합회와 아산시복음화를 위한 기도' 이현상 장로의 주제별 기도가 있었으며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제106주년을 맞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임현준 목사, '국가문

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완 목사의 환영사,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의 축사, 길성권 목사의 축사, 정해곤 장로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병완 목사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소년대표의 비전선언문 선포, 부모세대대표의 비전선언문 선포, 노부부대표의 비전선언문 선포로 이어졌다. 독립만세 운동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아산

(사)예장총연, 106주년 3·1절 국가기도회

이광용 목사, “3·1독립운동정신 상기 국가와 민족 위해 기도” 당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2월 28일(금) 오전 11시

마포구 월드컵로 (사)예장총연 법인회관에서 ‘3·1절 정신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로 ‘106주년 3·1절 국가기도회’를 개최하고 106년 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선열들의 합성을 되새기고 민족복음화와 국가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3·1절 정신을 상기하자’라는 주제 아래 열린 국가기도회는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안병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현재 우리 나라와 (사)예장총연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 법인감사 최명철 장로의 대표기도, 총무 김정대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합동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은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상임회장 김병선 목사, ‘국가안정을 위



해’ 상임회장 지광식 목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예장작은자선김총회 총회장 양유식 목사, ‘저출산 해결과 사회·도덕·윤리회복을 위해’ 지도위원 김순종 목사,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상임회장 오선미 목사, ‘종교혼합주의 WCC 및 이단파망을 위해’ 예장합동보수총회장 권혁은 목사, ‘(사)예장총연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해’ 회계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고문 김원식 목사와 예수 목사, 염장호 목사의 격려사, 예장보수합동총회 임원일동의 현금찬송, 예장합동경기 부총회장 김완수 목사의 현금기도, 서기 김영복 목사의 3·1절 선언문 낭독, 대표회장 이광

용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06년 전 일어난 3·1운동은 온 국민들의 기슴을 뜨겁게 했다. 우리는 선진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분열 없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 같이 3·1절 노래를 합창하고 고문 김원식 목사의 인도로 만세삼창, 고문 김기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회원들은 3·1절 정신과 기독교사상으로 한반도의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며 국민화합, 평정, 청결, 절제, 봉사의 덕목들을 실천해 나가 우리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와 감리교 반동성애총북연대(감반총연)는 최근 청주시 서원구 소재 충북연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서울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한 6인 중 충북연회 소속인 차홍도·김형국 목사의 출교를 촉구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구원을 받은 목사는 결코 진리를 왜곡할 수 없다”며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임하시는 분(요 16:8)이시다.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 진리의 성령님은 동성애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고 했다. 아울러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을 주심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했다.

“퀴어집회 축복식 참여한 차홍도·김형국 목사 출교하라”

감바연·감반총연, 최근 충북연회 사무실 앞 기자회견



국 목사가 동일한 범과로 고발됐다. 이들은 ‘목사가 축복을 한 것이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누구라도 축복을 해야 한다’는 곤변을 들어 놓았다며 “그러나 목사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축복인지를 성경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구원을 받은 목사는 결코 진리를 왜곡할 수 없다”며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임하시는 분(요 16:8)이시다.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 진리의 성령님은 동성애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신다”고 했다. 아울러 “사람은 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을 주심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했다.



2025년 3.1절 논평

“3·1운동은 독립운동이었고 애국운동이었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운동이었다”

올해는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여 나라의 독립을 되찾겠다고 전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요, 동시에 전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인식하여 4월 11일에 세워진 임시정부 임시현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였다. 3·1운동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16명이 민족 대표로 참여하였고,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잃고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 기독교는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종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 3·1운동 이후 세워진 임시정부 한법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선언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기(美軍政期)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세우려는 인민민주주의와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가를 건국함으로 달성되었다.

작금의 혼란스러운 탄핵정국 속에서 삼일절을 맞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식을 짙길하며, 다시 한 번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상기하고, 중국공산당의 초한전과 반(反)대한민국세력의 진지전에 맞서 인류 보편의 자유문명 가치 수호를 다짐한다.

1.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

1919년 3월 1일 선포된 기미독립선언문을 쓴 최남선은 선언문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다.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다. … 독립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당시 기독교인은 이 나라 전체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했지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절반에 달하는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 특히 독립

선언문이 놀랍게도 당시 일본제국에 대한 저주나 책망을 포함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인에게까지 자유와 독립, 그리고 만인의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설파하였던 사실을 볼 때, 그 정신과 사상이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낳은 기독교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선언문은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 선언이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이 특정 문화의 법이나 관습 또는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자연법상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인권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고 자유와 법을 부여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발전된 신앙고백이다.

세우려는 인민민주주의와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기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가를 건국함으로 달성되었다.

더 나아가 이 자유와 독립의 사상은 다음 아닌 140년 전부터 이 땅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 민족에 소개되었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널리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이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헌정 위기를 직시하며, 대한민국의 체제정체성이 서구 기독교 자유 문명과 미국과의 신앙동맹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상기하고 재천명하는 바이다.

2. 2025년 3·1절 맞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세력과 반(反)대한민국세력 간의 체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만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오랫동안 기생하며 정치사회문화를 좀먹고 있는 반(反)대한 민국세력을 노출시켰다. 의회의 곤변을 넘는 이석을 등에 업은 거대 야당이 압법부 독재를 방불케 하는 29번의 탄핵 남발과 예산삭감을 자행한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려는 반국가적 행태였으며, 엄연한 통치권 행사의 일환이었던 계엄령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의 내란물이와 공수처의 불법 구속 기소 및 사법부의 위법적 체포영장 발부는 수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는 말이 널리 공감을 얻는 상황이다.

또한 현법재판소 구성원 다수가 사법부

을 초월하여 모든 불법, 위법, 탈법, 부도덕한 수단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선거 개입, 예정보고, 댓글 전쟁, 미약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러한 초한전에 대응해 역공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자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공의 초한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3. 한국교회와 깨어있는 모든 자유민주 국가 시민은 광장에 모여서 기도와 행동으로 자유 문명을 지켜내야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난 1월 11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매주 토요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일 부산에

이다. 무엇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 간의 영적전쟁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싸움이다.

6·25전쟁이 중공의 개입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 부임한 매튜 리지웨이 미8군 사령관의 전군 전파사항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로 적절하다.

“[이 싸움의] 본질은 서구 문명의 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꽂고 싶도록 하신 그 [자유문명] 힘과 과연 공공연히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세력이 개인과 천부인권을 신성하게 보는 민주세력을 뒤집어엎을 것인가이다.

5. 한국교회는 3·1절을 독립만세의 날로 지키고 기독교 신앙을 애국의 날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당시 3·1독립만세운동에 장로교에서 8명, 감리교에서 8명, 총 16명이 민족대표(기독교 10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로 참가하였다. 한국교회는 준비단계, 곤신한정년당 조직, 도교에서의 28독립선언, 국내에서의 만세운동, 준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22만 정도로 전인구의 1.5%로 간주되었다. 1919년 4월 말까지 2120명으로 전도교 불교도 총수 1,556명보다 훨씬 많았고, 화성시 제암리교회당에서는 교인 29명(제암리 23명, 고주리 6명)이 학살당하고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는 등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애국애족 독립만세운동으로 표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종교 아니라 민족종교로 받아들여졌다. 수난을 많이 당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절 하만의 음모에 의해 민족적으로 말살당하려 했던 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함께 베옷을 입고 재(災)를 쓰고 기도하고 유대인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달려가 호소하여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해내어 이 날을 부림절(Purim)로 지킨다(에스더 9장). 오늘날 한국교회는 3·1절이 있는 주일을 독립만세의 날로 지키고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시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G7 선진국 위상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기념해야 할 것이다.

3·1운동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와 전국민의 평등한 천부인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러나 해방

현재 이 탄핵 국면은 국가적으로는 체제전쟁이며

세계적으로는 미중 간 문명 전쟁이다.

무엇보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 간의 영적전쟁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싸움이다.

내 반국가 좌익 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은 이번 탄핵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를 틈타 사회 각계각층에 진지를 구축해온 대한민국의 체제정체성을 훼손해왔던 반(反)대한민국세력의 실체를 널리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돌아보게 된 대한민국의 현정 위기 상황은 오랫동안 중국공산당의 공식 전략 전술인 초한전(超限戰)의 한국사회 침투 및 전개를 의심하게 한다. 초한전(超限戰)은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 1999년 중국인 민해방군 공군의 차오량과 왕상쑤이가 제시한 전쟁이론이다. 이러한 초한전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존 모든 한계와 상식을 초월하여 모든 불법, 위법, 탈법, 부도덕한 수단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선거 개입, 예정보고, 댓글 전쟁, 미약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러한 초한전에 대응해 역공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자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공의 초한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은 1919년 3월 1일 기독교인들을 주축으로 한 전국의 동포들이 일제에 항거하며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광장으로 모여서 중국공산당의 초한전과 반대한민국세력의 진지전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의 현정질서 수호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현재 이 탄핵 국면은 국가적으로는 체제 전쟁이며 세계적으로는 미중 간 문명 전쟁이다.

4. 3·1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매진해야 하겠다.

3·1운동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와 전국민의 평등한 천부인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러나 해방

시름을 품는 나비행동

독거 어르신 위한 외식지원 행사

사랑의전화복지재단, 'MEAL FOR CHANGE' 진행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은 지난 2월 18 일(화) 서울 '피그가든'에서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외식 지원 프로젝트 'MEAL FOR CHANGE'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미포종합사회복지관과 은선자활센터를 통해 선정된 100여 명의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초대되어 따뜻한 한 끼를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젝트는 흘로 식사하는 일이 일상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외식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데 의미를 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니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심정은 이사장은 "MEAL FOR CHANGE'는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닌, 외식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지원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존중받고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향후 외식 지원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 이단 경계주의'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가 새 학기를 맞아 2025년 캠퍼스 이단 경계주의 보를 발령하고, 전국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이단 단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학복협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적응하는 3월을 기점으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학 기독교 동아리와 청년부, 지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학복협은 "캠퍼스 이단들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의 방식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자연스럽게 이단 동아리나 성경공부 모임으

로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며 "이단들은 기독교 동아리로 위장하거나, 기존의 건전한 동아리에 침투해 활동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신입생 포교 활동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이단 단체로는 IVY(국제청소년연합),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JMS, 통일교가 꼽혔다. 학복협은 이를 단체의 주요 특징과 포교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대학가에 경보를 발령했다. 학복협은 대학 기독교 동아리와 청년부, 지역 교회들이 이단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말씀과 성령으로

한얼산기도원 이천석 목사는 부흥강사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기도하며 부흥 사역을 감당해왔다. 학경남도 고원에서 1929년 6월 20일 출생한 부흥강사 이천석 목사는 6.25 전쟁에 참여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상의 응사가 되었다. 그 후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고 명동방거리의 세계를 살았다.

별명이 명동 배곰이었다.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강사 성결교단 이성봉 목사의 집회를 방해하려고 참석했다. 그런데 오히려 감동이 되어 은혜를 받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그의 아내 변춘자 사모의 간절한 부탁으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1959년 10월 24일 삼각산기도원에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갑자기 천정을 올려다보는데 느닷없이 천정이 뚫리더니 새빨간 불덩어리가 그의 머리위에 떨어졌다. 드디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다.

그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끊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온몸이 타버릴 것 같았고 머리가 아찔했다. 그런 후에 빛 가운데 거하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후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였고 그 당시 전도사사절에 1967년 5월 31일 서울 중구 광희동에서 50명 3층에서 임대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성복중앙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개척 후 초창기에 신유은사가 크게 일어났다. 기도할 때 귀신이 내쫓겨 나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병원에서 사망선고 받은 사람도 이천석 목사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천석 목사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222번길 한얼산기도원을 세우고 한국교회에 기독교의 큰 역사를

이루는 모델이 되었다. 70년대 이르러는 신유와 병언으로 한국교회의 은사집회로 유명해졌다.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한얼산을 찾고 능력의 부흥집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글을 쓰는 이수 교수도 3~40년 전 목회 초창기 때 큰 아들이 간단 애기였을 때다. 한얼산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지금 목사가 된 큰 아들을 명석에 재우고 남편 목사와 한밤중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때의 그 믿음이 새롭다. 특별히 한국축구 대표선수였던 차범근 선수가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 이천석 목사에게 악수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

그 후 독일에 가서 프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무사히 마치고 오게 된 이야기는 유명하다. 차범근 선수에게 처음에 전도했을 때는 시큰둥했는데 부상으로 드러눕게 되자 제대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소식을 듣고 한얼산에 올라가 이천석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고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수가 되었다. 이천석 목사는 종암동 성복중앙교회를 건축하고 1985년도에 위임목사가 되고 한얼산기도원의 원장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든지 다니며 세계에 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1986년에 집회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길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강사로 한얼산기도원에서 말씀을 선포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길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수술비 지원

수술 후 일상을 회복하게 해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달 12일, 신장이식 환자 최운호 씨(53세, 남)에게 신장이식 수술비 일부를 지원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80%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각막 및 장기이식 수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일정 심사를 거쳐 각막 이식 수술비 300만 원 이내, 장기이식 수술비 1천만 원 이내의 실비 지원을 하고 있다.

수술비를 지원받은 최 씨는 2014년 중국인 아내 최명연 씨와 결혼한 후 중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2016년 만성콩팥병 진단을 받았다.

남편의 혈액투석을 간호해 온 아내 최명연 씨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해 왔다.

최 씨는 투병 초기부터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



로 등록하고 오랜 기간 이식을 기다려왔으나, 쉽사리 기회가 닿지 않았다.

이에 남편의 고된 치료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신장기증을 결심했고, 2024년 12월 18일 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장기기증운동본부

는 최 씨의 수술비로 244만 6,340원을 지원했다.

신장을 기증하고, 이식받은 부부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남편 최 씨는 신장 관련 수치 등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되찾았다.

청년 주거 안정 위해 5억 원 기금 조성

한국해비타트-카카오페이, 전세사기피해 청년지원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가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페이는 5억 원을 후원하며,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사업의 주요 후원사로서 사업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한국해비타트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 가운데 거주 안정이 필요한 10여 명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양사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회복을 돋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은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캠페인을 시작으로 피해 회복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해비타트는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신용근 대표는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돋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상생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아(학제보고)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증, 오십경,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 블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흉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볶으면 뱀가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탄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명예를 귀히 여긴다

명예의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 상호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많은 것을 거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대왕과 동일한 이름,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병졸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왕과 이름은 같았으나 그의 생활태도는 엉망이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매우 더럽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병졸 알렉산더가 머물고 있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졸 알렉산더는 겁에 질려서 경례를 하고는 부동의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렉산더입니다”라고 병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꾸어라. 그것이 싫다면 네 삶을 바꾸어라. 그리하여 이름에 불어있는 더러움을 씻어라.”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

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일반 단어를 쓰는 붓과 하나님을 쓰는 붓을 구별해서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가문의 명예를 걸고서 식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명예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쁨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전 7:1~2)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광야지나… 가나안…

스물 셋 고운 나이 주님 만날 때
찬양하는 기독시인 너무 부러워
아쉬워도 주님 사랑 표현 못했네.

주님 날 사랑한다 알고 난 뒤에
노트 담아 부끄럽게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한 마음 적어보았네.

성경 속 광야생활 길고 긴 훈련
순종의 기쁨 불순종의 아픔 겪게 하시니
내 인생 광야 길이 어언 수십 년.

스물 셋 주님 만나 긴 시간 지나
자녀양육 훈련 통해 깊은 사랑 배우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시가 되어 설레는 날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 누리며 오늘은 산다.

사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하지만 사법부의 권위가 지금처럼 추락한 적은 과거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기로 몰리게 된다.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자명한 일이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지만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이란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면 법관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만 한다. 이런 사법부의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권위가 어떻게 무너질까?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여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안하무인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행태들이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내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엔가 훌린 듯, 신들린 것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있다. 원칙도 법도 무시하고 제 맘대로 날뛰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잃었다. 정신 이상자들의 집합소 같다. 모두가 입을 열어 이건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다.

만일 원칙대로 법대로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일거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건만... 무엇엔가 훌린 듯, 무자각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서 그대로 발부함으로서 윤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이 끝내 승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이 나라에 성지가 사라졌다는 실감이 난다. 편파적 도 이런 편파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적 감사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그들의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을 어기기는 기본에 속한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2심 기한을 모두 어겼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짓을 반복하여 사법부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훼손을 자초했다.

전두환의 군대 ‘하나회’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그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공직을 더럽혔다. 그들이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들의 악용이 실현

될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점증되었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백rick간두에 섰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행태가 지금의 법원 내에서 옛 하나회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들만의 악을 불태웠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 법원은 공정이 생명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공정을 상실하고 말았다. 국민 10명 중 한명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4명을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오만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취임 이를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야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예고했던 일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4대 4로 기각했다.

인용 결정문은 벌어진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살펴보았더니 ‘201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재판관들은 궁예의 관심법 배웠을까? 궁예의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난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민을 뛰어 알고 현재가 갈등의 최종 종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시작으로 일관하고 있다.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이런 것을 막나니짓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달 15일에 전남 광주 금남로에서는 탄핵 청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경찰 축산으로 말하면 탄핵찬성이 1만 명, 탄핵반대가 3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탄핵 반대집회는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관했고, 탄핵찬성 집회는 야권 단체들이 주최했다. 세이브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참석한 탄핵 반대 집회 수치를 6만으로 발표했다. 야권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그것도 금남로에서 이런 보수 성향 집회에 대규모 군중이 모이기는 역사 아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 했다.

탄핵 반대집회 군중 수자가 갈수록 세를 얻고 있다.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약자를 폭력으로 탄압, 배제하는 것이 극우다. 과거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그랬다. 북한 김씨 왕조는 극우 그 자체다. 민주당은 이런 복한을 한번도 비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광주에서 일어난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들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극우 세력의 인연수심이 도를 넘었다면서...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복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관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2. 총회를 설길 의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총회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혼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1.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2.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입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1.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당사자는 제출자의 입회에 서류를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총회 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입후보 등록 가·부를 입후보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3.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지방회임원회의 추천과 총회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등록한 입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관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회원에게 공지한다.

5. 선관위 시행규칙을 위반한 입후보자 및 총회원은 즉시 선관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 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관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관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6. 총회임원회는 선관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관위는 입원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7.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8. 등록비는 총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총회 입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입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제5조 총회임원 입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1. 총회장 상호 금품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시사집대행위

3. 관광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인터넷, 유인물을 통한 선거운동

7.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관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 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입후보자의 제출서류 : 각 1부식

1. 입후보 신청서(총회양식)

3.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5. 명함판 사진(6개월 내 활성영) 30매

7. 지방회임원회 주천서

9. 이력서 및 교단 내 약력 소개서

11.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5. 3. 3. 일부 개정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4. 총회 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6. 기타 선거운동

2. 약수 증명서(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4.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6. 입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8. 총회원 10명 이상의 주천서

10. 입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2012. 3. 5.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1. 등록마감 : 2025. 3. 31(월)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재영 목사(010-7457-9768)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조길수 목사(010-6646-291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신재영 서기 조길수 조길수